

미학 이론 흐름 (스토리텔링)

by. 파오핑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인간에게 아름다움, 즉 '미'라는 것은 뭘래야 뭘 수 없는 중요한 것인 거 같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라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떨 때 '미'를 느끼는 것일까? 이런 당연한 의문에서부터 미학 이론이 시작돼.

이렇게 '미'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이론을 통틀어서 미학 이론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미학 이론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돼. 음! 혹시 고대 그리스하면 뭐가 떠올라? 수학! 수학이 떠오르지 않아?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이런 위대한 수학자들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 그래서인지 그들은 미학 이론에 접근함에 있어서도 수학적 사고를 차용하게 돼. 그들은 인간이 '미'를 느끼는 사물들에는 분명 뭔가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을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그 사물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지! 반대로 그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을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그 사물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야. 결국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이 '미,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그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돼.

그들은 활발한 논의 끝에,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을 시각적 대상에 관해서는 '비례', 청각적인 대상에 관해서는 '조화'로 정해버려. 즉, 어떤 사물이 '비례'나 '조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물은 항상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는 거야. 반대로 '비례'나 '조화'를 결핍하고 있는 사물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 우리가 그 사물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물의 형식적 요소인 '비례'와 '조화' 뿐이므로 이때는 미의 주체가 개별 사물(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지.

★요약★

- 미(美) = 아름다움
- 미학 이론 = '미(美)'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이론.

고대 그리스 (~BC. 5세기)

미(美) =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

- (1) 비례 (시각)
- (2) 조화 (청각)

이후 기원전 5세기쯤에 '조화'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반론 때문에,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에서 '조화'는 삭제돼버려. 결국 '미'라는 개념은 시각적인 대상에 국한되었다는 이야긴데, 이건 딱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러한 미학 이론이 중세 시대를 지나, 근대 시대에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과연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사물에 '비례'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물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일까? 황금 비례를 가지고 있다고 불리는 비너스의 여신상을 보면 과연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낄까? 단 한 명이라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닐까? 간단히 생각해보기만해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론인거지.

플로티누스라는 아저씨는 이런 반론을 펼쳐. "미의 부분적인 요소가 비례가 될 수는 있지만 미의 본질 자체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례가 없는 빛이나 별 같은 단일 대상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아주 훌륭한 반론인 거야.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고대 미학 이론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상황에 이르러.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학 이론 등장은 필연적이었던 거지. 혹시 '미'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질이 없는 거 아닐까? '미'의 주체는 개별 사물이 아니라, 인간인 것 아닐까? 사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사물을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싹트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근대 17세기였어.

이런 의문들은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싹트게 됐어. 그러나 그 모든 의문들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일축돼 버려. 그게 누굴까? 아마 모두 알고 있을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아! 데카르트야. 그 당시 프랑스의 철학을 업고 가고 있었던 데카르트가, '미의 이성적 본질'이라는 개념을 끌어 와서 은근히 고대 미학 이론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와 같은 의문들이 전부 수그러져버려. 의문을 갖는 철학자들이 많긴 했지만... 쭈구리 철학자들이 데카르트한테 대들어봤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들도 대체로 데카르트의 의견에 동의하게 돼. 왜 이들은 고대 미학의 손을 들어준 걸까? 그걸 알아보려면 데카르트의 철학 사상을 간단하게나마 알아봐야 돼.

★요약★

- 고대 미학 이론에 대한 수많은 반론이 제기됨.
- But, 데카르트의 '미의 이성적 본질' 개념 → 반론 일축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 사상이 회의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게 맞아. 하지만 우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데카르트의 사상적 근간에 대해 알아볼 거야.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자였어.** 뭔가 이름부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뻑뻑하고... 그럴 거 같지? 그는 어떤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이성'에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버렸어. '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고력, 논리력 등의 사유 능력을 뜻해. 데카르트는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사유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신'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야.

이런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철학자들도 분명 있었겠지? 바로 **'경험주의' 철학자들**이야. 이 사람들도 한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로크!!!!!! 베이컨!!! 흠! 이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저런 생각에 반대했어. 이들은 대상을 인식할 때 **인간은 오직 그의 직관과 감정, 경험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야. 모든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고, 사유할 수 있더라도 인간이 직관과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자. 그럼 돌아가서, '미'가 인간의 직관, 감정에 의해서 촉발된다는 의문을 데카르트가 반겼을까? 절대 아니지. 만약 '미'가 인간의 직관, 감정에 의해 환기되는 것이라면... 데카르트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이성'의 권위가 곤두박질쳐지게 돼. 그래서 데카르트는 '미'는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되는 객관적인 실재라고 하는 '미의 이성적 본질' 개념을 끌고 들어와. 자신의 견해와 고대 미학 이론을 절충함으로써 은근히 고대 미학 이론을 옹호한 거지.

반면에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어땠을까? 완전 대환영이겠지? 자기들 사상에 완전 부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미'를 해석하게 되고, 이것이 근대 미학 이론 '취미론'으로 만들어져.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 - 로크, 베이컨, 흠은 모두 영국 사람이었어. 그래서 '취미론'의 사상적 배경은 영국의 경험주의라는 말을 하는 거야.)

★요약★

합리주의 : 데카르트

- 이성 : 절대적 권위, "사유 가능한 것은 존재한다."
- 직관, 감정을 배제한 오직 이성(논리, 사고)을 통한 인식.
- 형이상학적 지식 인정 "신은 존재한다." - 사유 가능하기 때문

경험주의 : 로크, 베이컨, 흠

- 경험 : 절대적 권위, "모든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 직관, 감정을 통한 인식.
- 형이상학적 지식 부정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험할 수 없기 때문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수많은 논의 끝에, 인간이 '무관심성'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할 때 '무관심적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 대상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 '무관심성'이란 모든 이해관계(interest)에서 벗어나는 걸 뜻해. 즉 인간이 순수하게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 대상에게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 대상은 아름답다는 거지. '미'의 주체를 개별 대상으로부터 인간으로 끌고 온 것이지

그런데 그 후에 “인간은 어떨 때에 사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이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즐거움’을 환기하는 대상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내어 미적 판단의 보편적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소위 ‘취미론의 공식’을 완성하려 했던 거야.

그 결과 찾아낸 공통적인 성질이 ‘비례’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었어. ‘즐거움’을 환기하는 대상들에게 ‘비례’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근대 미학의 공통적인 성질(비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고대 미학의 객관적인 성질(비례)과는 다르다는 거야. 고대 미학의 객관적인 성질(비례)은 미,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근대 미학의 공통적인 성질(비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그저 미의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근대 미학의 공통적인 성질에 인간은 반응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인간에게 그러한 근대 미학의 공통적인 성질(비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감각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취미’능력이라고 명명하게 돼. 그러나 그 후에, 근대 미학의 공통적인 성질이 형식적인 성질에서 탈피하여 미적 범주가 확장되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능력이 요구돼. 그러한 배경에서 ‘송고’능력이나 ‘풍려’능력을 명명하게 돼.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요약★

18세기 취미론 : 영국 경험주의

미(美) = 인간이 ‘무관심성’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할 때, 느끼는 ‘무관심적 즐거움’

무관심성 = 이해관계(interest)에서 벗어난 상태

무관심적 즐거움 = ‘비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의 형식적 성질에 의해 환기됨.

(But, 여기에서 형식적 성질이란, ‘미, 그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미를 구성하는 한 요소’를 뜻함.)

취미 = ‘비례’와 ‘다양성의 통일성’의 형식적 성질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sense)을 칭하는 말

취미론은 미의 주체가 전적으로 사물이었던 고대 미학 이론에서 탈피하여 미의 주체를 인간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 또한 미적 즐거움이 고대 미학 이론에서는 그저 '미에 수반되는 성질'로 여겨졌다면, 취미론에서는 이를 '정의적인 성질'로 격상시키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취미론은 '미의 주관화'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나 취미론은 미적 대상들의 '공통적 성질'을 발견해서 미의 기준을 공식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미의 주관화'를 이루지 못한 '미의 반주관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지는 못해. 즉 취미론은 미에 대한 고대의 사고(형식)를 근대적 사고(감정)에 접목한 결과로서 미에 대한 이원적 사고를 보여줄 뿐이라는 거지.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취미론은 오히려 경험주의 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돼. 미적 대상들의 '공통적 성질(비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주관적인 즐거움으로 판단된 대상들을 귀납적으로 관찰하여 도출한 결과에 불과해서 이것이 보편적인 필연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지. 애초에 취미론을 따르면,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취미론의 공식'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

정리하면 결국 취미론은 '공통적 성질'로서 '취미론의 공식'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미 완전한 '미의 주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취미론의 공식'마저도 불완전한 공식이라는 거지. 여기예다가 비트겐슈타인, 스튜어트 등의 논리학자들과 현상학자들이 연이어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미적 태도론'이야.

미적 태도론은 EBS 교재 어디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고,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정도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미학 이론이 나오더라도 커버 가능...) 이만 줄이도록 할게! 수능에서 미학 이론이 출제될 때면 항상 정답률이 낮았어. 그만큼 학생들이 미학 이론을 어려워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 흐름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운 제재가 될 거야. 의심된다고? 그럼 이 글을 몇 번 읽고 나서 EBS 수능특강 13쪽의 지문과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해. 아마 동화책 읽는 느낌일 걸?

★요약★

다음 장에..

취미론의 의의

- (1) 미의 주체를 개별 사물로부터 인간으로 돌림.
- (2) 미적 즐거움을 '미에 수반되는 성질'에서 '정의적인 성질'로 격상함.
→ '미의 주관화'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음.

취미론의 한계

- (1) 미적 대상들의 공통 성질을 도출해 공식화하려는 점에서 완전한 '미의 주관화'를 이루어냈다고는 볼 수 없음.
- (2)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취미론의 공식'도 불완전한 공식임.

총정리

I. 서양 철학 상식

합리주의 : 데카르트

- 이성 : 절대적 권위, "사유 가능한 것은 존재한다."
- 직관, 감정을 배제한 오직 이성(논리, 사고)을 통한 인식.
- 형이상학적 지식 인정 "신은 존재한다." - 사유 가능하기 때문

경험주의 : 로크, 베이컨, 흄

- 경험 : 절대적 균위, "모든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 직관, 감정을 통한 인식.
- 형이상학적 지식 부정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험할 수 없기 때문

II. 미학 상식

- 미(美) = 아름다움
- 미학 이론 = '미(美)'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이론.

Ⅲ. 미학 이론 흐름

고대 그리스 (~BC. 5세기)

미(美) =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질

- (1) 비례 (시각)
- (2) 조화 (청각)

고대 미학 이론에 대한 수많은 반론이 제기됨.

But, 데카르트의 '미의 이성적 본질' 개념 → 반론 일축

18세기 취미론 : 영국 경험주의

미(美) = 인간이 '무관심성'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할 때, 느끼는 '무관심적 즐거움'

무관심성 = 이해관계(interest)에서 벗어난 상태

무관심적 즐거움 = '비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의 형식적 성질에 의해 환기됨.

(But, 여기에서 형식적 성질이란, '미, 그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미를 구성하는 한 요소'를 뜻함.)

취미 = '비례'와 '다양성의 통일성'의 형식적 성질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sense)을 칭하는 말

취미론의 의의

- (1) 미의 주체를 개별 사물로부터 인간으로 돌림.
- (2) 미적 즐거움을 '미에 수반되는 성질'에서 '정의적인 성질'로 격상함.
→ '미의 주관화'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음.

취미론의 한계

- (1) 미적 대상들의 공통 성질을 도출해 공식화하려는 점에서 완전한 '미의 주관화'를 이루어냈다고는 볼 수 없음.
- (2)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취미론의 공식'도 불완전한 공식임.